

4》 착공 시작하는 SPACE21 안전문제 점검



6》 연재기획: 대학원의 위기, 해답을 모색하다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안내

대상: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
기간: 3월 2일(월) 10:30~3월 6일(금) 18:00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3월 9일(월) ~
수강신청학점 취소: 3월 9일(월) 10:30~3월 13일(금) 18:00

정량평가 시뮬레이션, 3개 항목 평균이하 제도 개선 못지 않게 구성원 협조 필수

대학구조개혁 평가 목표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대학구조개혁 정량평가 지표 중 전임교원 강의비율, 강의규모, 취업률 등 3개 지표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타대학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학생분포가 포함된 4개 지표가 평균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학생성적 분포는 부작용이 나타나 제외한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1월 대학본부가 실시한 정량평가 시뮬레이션은 종교지도자 양성대학, 예체능 중심대학을 제외한 170여개 대학의 정량지표 항목의 평균수치를 우리학교의 수치와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학정보공시 자료가 없는 교육비 환원율과 장학지급률 항목은 지난해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대학평가 자료를 활용했다.

이럴 경우 가장 높은 A 등급에 선정되거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A 등급을 받기 위해선 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을 받고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를 맞아야하기 때문이다.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우지연 팀장은 “시뮬레이션에 포함된 다른 지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전임교원 강의비율, 강의규모, 취업률 항목은 타대학 평균에 다소 못 미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업률도 마찬가지다. 우리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왔지만,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대학정보공시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취업률은 2012년 54.7%를 기점으로 2013년엔 52.5%를 기록해, 계속 하락세에 있다. 2014년도 취업률도 50.6%로 대학 전체 평균 54.8%에 미치지 못한다.

평가 지표에는 제외됐지만 성적 분포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 중 학점관리현황 작성공식으로 산출된 우리학교의 성적분포 값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을 맴돌았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3면으로 이어짐

대학구조개혁 정량지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평가항목	전국대학 평균	우리학교
전임교원 확보율	68.9%	< 69.68%
교육비 환원율	176.1%	< 179.5%
전임교원 강의비율	58.8%	> 46.7%
강의규모	31.3%	> 30.9%
시간강사 보수수준	4만 3,300원	< 5만 1,300원
학생성적 분포	38.9%	> 31.4%
장학금 지급률	18.4%	< 20.3%
신입생 충원율	98.5%	< 99.1%
재학생 충원율	102.7%	< 114.3%
취업률	50.3%	> 49.7%
교사 확보율	100% 기준치	< 140.2%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 실제 평가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학생성적분포는 지난달 27일 교육부 발표에 의해 평가항목에서 제외됨.

우리학교 및 경쟁대학 전임교원 연간 책임시수

경희대 12시간	성균관대 - 15시간 학부 9시간 의무강의, 학기 3시간 의무강의	
고려대 12시간	한양대 - 15시간 학부 1강좌 의무강의, 주당 6시간 의무강의	
서울대 18시간	연세대 12시간	중앙대 12~15시간

행운과 불행이라는 자매: 《열반경》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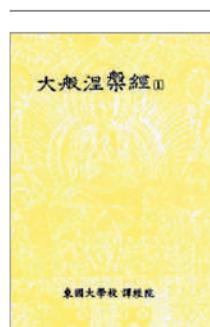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④

김종인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우리들 대부분은 건강한 삶, 부유한 삶, 즐거움이 가득한 총족된 삶만을 꿈꾸며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의 삶의 구조는 총족된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 《열반경》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다.

얼굴이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어느 부유한 이의 집에 들어가자 그 집의 주인이 기뻐서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행운의 여인이라 합니다. 나는 찾아가는 곳마다 그 집에 부귀와 행운을 불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



《열반경》은 세상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은 그 여인을 맞아들여 향을 사르고 꽃을 뿌려 공양하였다. 조금 후에 또 한 여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못생기고 몸이 더러웠으며,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다.

주인은 기분이 나빠져서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불행의 여인이라 합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그 집에 불행을 불러 오지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칼을 들고 나오면서 외쳤다.

“썩 물려가지 않으면 이 칼로 죽여 버리겠다.” 이렇게 주인이 덤벼들자, 그 여인이 말했다.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고 지혜가 없군요. 조

금 전에 당신 집에 찾아온 이는 내 언니예요. 나는 항상 언니와 행동을 같이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쫓아내면 결국 내 언니도 따라 나가게 될 것이오.”

주인이 안으로 들어가 행운의 여인에게 물었다. “밖에 어떤 여인이 와서 당신의 동생이라 하는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좋아하려면 내 동생도 함께 좋아해야 합니다. 나는 늘 동생과 같이 행동하였고, 한 번도 서로 떠나 본 적이 없습니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창간 60주년 대학주보
100년의 틀을 새로 만듭니다
종이신문 넘어 ‘모바일퍼스트’를 지향합니다

1955년 5월 12일, 1호를 낸 대학주보가 올해 5월 12일, 창간 60주년을 맞이합니다.

대학주보의 60년은 혁신의 역사였습니다. 1984년 모든 신문이 세로쓰기를 고집할 때 대학주보는 가로쓰기를 택했습니다. 독자의 편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1996년, 대학신문 최초로 컬러지면을 도입했습니다. 보다 미려한 디자인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2003년, 대학생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섹션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한국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유럽형 베를리너 판형을 도입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2015년 60주년을 맞이하는 대학주보는 또 한 번의 혁신을 준비합니다. 지금까지의 종이신문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뉴스 부문의 강화를 축으로 한 ‘모바일퍼스트’를 지향합니다. 변화하는 독자의 뉴스 소비 트렌드를 적극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종이신문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바탕위에서 뉴스 소비의 주요 통로가 되어가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 개발과 인터페이스, 그리고 유통 채널을 구축해 매일 매일 독자들께 찾아가는 대학주보로 거듭날 것입니다.

2015년은 먼저 대학주보가 전하는 매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모바일퍼스트’를 가능케 할 인프라 구축을 진행합니다.

1 디지털뉴스 부문을 강화합니다

대학주보 뉴스는 매일 작성되고 온라인을 통해 매일 전달됩니다. 대학주보는 독자 여러분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뉴스 유통 채널 강화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메일 뉴스레터 주 3회 발행 : 주간 1~2회 발

행되어온 이메일 뉴스레터를 주 3회(월, 수, 금)로 확대·전달합니다.

소셜미디어(SNS) 강화 : 대학신문 중 가장 활발한 소셜미디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한 뉴스 전달은 물론 독자 여러분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하겠습니다.

CMS 강화 :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독자의 기사 이용 흐름을 분석하고 ‘보고 싶은 기사’를 좀 더 쉽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대학주보 종이신문 발행주기를 격주간으로 조정합니다

발행주기를 격주간으로 전환합니다. 종이신문은 학내외 주요 이슈를 보다 깊게 살펴보는 기회 기사를 중심으로 제작됩니다. 매일 전달되는 디지털 뉴스 중에서도 독자의 관심이 높고 사안의 중요성이 높은 아이템을 보다 긴 호흡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3 대학주보 매거진, 매거북 형태로 발행합니다

대학주보 매거진은 단일 주제를 대상으로 깊게 탐구하는 매거북(magabook) 형태로 전환합니다. 대학주보는 이미 2011년 1월 우리학교의 디자인과 UI, 상징물을 주제로 매거북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5~6개의 주제를 가지고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또 한 번의 혁신을 시작하는 대학주보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림

면

〈편집장〉 권오은(언론정보학 2009)

〈보도팀장〉 김윤철(국제학 2010)

〈여론팀장〉 정용재(경영학 2010)

명

〈편집장〉 백승철(정치외교학 2011)

〈부편집장〉 최승욱(전자전파공학 2014)

〈정기자〉

권윤지(정치외교학 2014) 박기운(경영학 2014)

방누리(식품영양학 2014) 이시은(컴퓨터공학 2011)

위자현(스페인어학 2014) 조재신(한국어학 2011)

의원면직

〈정기자〉 이재은(경영학 2014)

〈수습기자〉 장미영(언론정보학 교환학생)

시선

사설

대학원의 다양한 문제 교수사회의 거울이다

대학원은 각 학문 분과의 첨단(尖端)에서 이론과 현상을 정지(精緻)하게 탐구하며 학문 발전을 견인하는 최고 위 학술기관이다. 대학원은 크게 두 가지의 사회적 역할을 지닌다. ‘학술연구’와 ‘연구·전문인력의 양성’이 그것이다. 이 중 ‘학술연구’와 ‘연구인력의 양성’이 학계의 현재적·미래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갖는다면, ‘전문인력의 양성’은 혼존하는 학술적 성과를 사회 일반에 유의미하게 적용·보급시킨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대학원의 사회적 역할은 ‘교수’의 사회적 역할과 거의 동일하다. 교수들 역시 해당 학문분과의 첨단에 선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와 ‘인력양성’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원은 교수의 역량으로 채워지는 공간이며, 따라서 대학원은 전통적으로 교수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원이 단기간에 꽤나 할만한 성장을 이룬 배경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사제 관계’를 짚기도 한다. 일례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서양과 같은 교육조직이 기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량 있는 교수와 그 문하에서 절차탁마하듯 혁신하는 박사과정생이 만나는 한국적 문화 관계가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성장 동인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교수가 중심이 되는 대학원의 구조적 특성은 매우 커다란 근본적 위험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가령 역량 없는 교수 아래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성과나 인력양성이 요구해진다든가, 사제 간의 불합리한 관계형성이 시스템적으로 통제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위와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불거진다 한들, 교수의 강력한 권한은 그 문제점들이 구성원에게 공유되는 것을 손쉽게 막아낼 수 있다. 조직 내에 어떤 증상이나 병폐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공론화된다는 것은 대학원 내의 권력구조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상술했듯, 대학원은 교수의 역량으로 채워지는 공간이고, 대학원은 전통적으로 교수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왔다. 바로 그렇기에 결국 한 대학의 대학원은 그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의 거울로서 기능한다. 연구 성과가 뚜렷한 대학원은 학문에 매진하는 교수의 모습을 비추고, 많은 인재가 배출되는 대학원은 후학양성에 공들이는 교수의 모습을 투영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원의 낙후된 교육환경은 제자들에게 무관심한 교수의 모습을 비추고, 폭력·차별·사적노동·저작권 편취 등 온갖 부조리 속에 신음하는 대학원생의 현실은 교수사회의 모럴해저드를 적나라하게 투영한다.

그렇기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곧 교수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주보가 이번 학기를 맞아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연재시리즈를 기획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연재 과정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첫 기사를 위한 사전 취재과정에서도 ‘교수 입장에서 예민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부서에서 번번이 거절되곤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하는 대학원 내의 문제를 이렇게 ‘인(人)의 장막’으로 가리는 것은 결국 생동하는 암세포를 없는 셈 외연하는 행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다.

**약대 류종훈 교수,
의대 윤태영 교수 연구팀
정신분열증 원인 규명**

미디어 여론동향 2015. 2. 25~2. 28

여론동향팀 khunews@knu.ac.kr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명예퇴직’(# 경희숲_7293, 2015.2.25)에 관한 내용의 글이 관심을 끌었다. 이 글은 220개의 ‘좋아요’와 5개의 댓글을 기록했다. 글쓴이는 예상치 못한 인원감축으로 아버지가 회사를 떠나게 되어 앞으로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할 것 같아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벗어나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힘들겠지만 멋진



서울캠 이과대학-국제캠 자연계열 다전공자 전공기초이수여부 논란 전공기초 통합 논의, 더 넓은 차원으로 고민해야

이시은 기자
(dlldms77@knu.ac.kr)



‘물리학 및 실험’이라는 과목이 있다. 국제캠퍼스 자연계열 학생들 모두에게 친숙한 과목이다. 기자도 신입생 때 선배들이 골라준 첫 번째 과목이었다. 그래서 이런 ‘물리학 및 실험’이라는 과목을 국제캠퍼스에서 이수한 학생이, 서울캠퍼스 이과대학의 학과로 다전공을 할 경우 다시 이과대학의 ‘물리학 및 실험’을 수강해야 한다는 제보에 더 눈이 갔다. 제보 이후 다전공 학생들을 만나면서, 단순히 ‘물리학 및 실험’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학수번호가 다를 경우 모두 ‘다시’ 들어야 했다.

이에 대해 실무부서 관계자들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의 혼란에 공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공기초, 그 중에서도 과목 내 전공특수성이 조금이라도 개입될 여지가 생기는 순간 같은 말이 돌아왔다. “전공의 지향점이 다르면 아무리 유사한 과목이라도 다른 과목으로 인정해야 한다.”

물론 유사한 과목이라도,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학문적 지향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면 해당 과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연계열 다전공 학생들이 지향하는 부분은 ‘학문적 지향’이 개입하기 이전의 기초부분이다.

과목명도, 커리큘럼도, 교재도 같은데 ‘다른 과목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학생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특히 학과별 ‘특성’을 이야기한다면, 국제캠퍼스의 자연계열이 전공기초과목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설명할 근거도 약하다. 더불어 이과대학은 지난 2010년 ‘담너머 세상’과 같이 융·복합이라는 학문적 발전방향을 주도한 단과대학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적인 과목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 지향해온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다.

나아가 단순히 서울캠퍼스 이과대학-국제캠퍼스 자연계열 다전공자의 문제로 판단한 일이 아니다. 유사과목에 대한 학수번호 통일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수강을 막고, 장기적으로 과대한 강좌 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학본부가 학생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의 강좌수가 다른 대학에 비해 ‘너무 많다’며 강좌수 축소를 추진하며, 대형강의 수를 늘린 것에 비해 훨씬 교육여건에 바람직하기도 하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구성원간의 폭넓은 과목연구가 병행된다면, 현재 우리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거버넌스 개편과 맞물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 역시 기초과목에 발목 잡히는 시간을 심화과정에 쏟아, 보다 나은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0월 이과대학의 관련 논의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학교의 ‘답’을 주목하는 이유다.

아들이 되길 바란다”는 응원의 댓글이 올라왔다. 2015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회연찬회가 “정상을 향한 혁신과 협력 - 위상과 책임행정”을 주제로 지난 달 4일 광릉캠퍼스에서 개최됐다.(2015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회연찬회)연계협력 성공 위한 행정 혁신 필요성 공유·방안 논의/대학 홈페이지 Focus, 2015.2.24) 우리학교는 3년 전부터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외·학내외 학문간 경계를 뛰어넘는 연계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대학 핵심 가치 구현을 목표로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해온 결과, 위상이 높아졌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대기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기업과의 관·산·학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번 연찬회에서 조인원 총장과 부총장단, 교무위원, 의료기관장, 부속기관장 등 60여 명은 연계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그 방안을 논의했다. 연찬회는 1부 안건 발표, 2부 분임 토의로 이어졌다.

국내연구진이 심각한 정신질환인 정신분열증의 발생원인을 규명했다.(경희대 의료진, 정신분열증 발생원인 세계최초 규명/헤럴드경제, 2015.2.23) 우리학교 약

대학을 둘러싼 이슈들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딱 1년 전 이맘때다. 전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처 사회에 적응할 새도 없이 칼복학을 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우연히 대학주보 수습 기자 모집포스터를 보게 됐고, 그 길로 편집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 후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처음 편집실에 들어섰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다. 나는 편집실이라는 공간은 항상 TV나 영화 속에서 보이는 모습처럼, 재떨이에 담배는 수북히 쌓여있고 정돈되지 않은 온갖 자료와 종이들이 흩어져 대는 혼돈의 공간일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본 것은 놀랍게도 정말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편집실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물론, 1년이라는 시간은 그 때 그 깔끔했던 편집실의 모습이 세심히 연출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아채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편집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얻고 ‘첫’ 세시봉을 쓰고 있다.

첫단추, 첫인상, 첫느낌, 첫눈, 첫남자, 첫사랑… 어떤 단어 앞에 ‘처음’을 뜻하는 ‘첫’이라는 접두사가 들어가면 단어가 주는 느낌이 확 달라진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설렘과 약간의 긴장을 주면서 동시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지니고 있다.

그래서 ‘첫 세시봉’을 어떤 이슈에 대해 쓸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을 해봤다. 그러다보니 요즘 한창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자분리공사가 눈에 들어왔다.

이 공사는 SPACE21사업 및 공공기숙사 건립을 위한 사전공사다. 들이켜보면 내가 대학주보에 들어와서 ‘처음’ 쓴 기사가 바로 서울캠퍼스 대운동장 공공기숙사 관련 기사였다. 학교 측이 공공기숙사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열어 그 입장차를 좁혀보려 했지만, 뚜렷한 소득 없이 끝났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였다.

다른 기삿거리다를 때보다 공공기숙사 관련 기사를 다룰 때는 이상하게도 애착이 더 많이 갔던 것 같다. 의식적으로 공공기숙사 관련 이슈를 관심 있게 지켜보기도 했다. 임대업자들이 주장했던 ‘공실 대거 발생’을 반박하는 기사와 행정심판 기사 등은 내가 썼던 다른 기사들보다 더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오늘도 등굣길에 보자분리공사현장 겉을 지나며 감회가 남달랐다. 편집장으로서 내는 첫 신문인 이번 호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내게 많은 기억과 추억을 남길 것이다. 그리고 이번 호를 만들면서 수십 차례 씩 살펴보고 다시보고 재검토한 대학구조개혁, SPACE21 사업, 학사제도, 대학원 문제 등의 이슈들 역시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많이 남을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지 궁금하다. 바라건대 뿌듯한 기억으로, 보람찬 기억으로 남아주길 바란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산적한 이슈들을 심도깊게 취재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설렘과 긴장이 반반씩 섞인 마음으로, 첫 세시봉을 지면에 실어 보낸다.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ww.facebook.com/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
구독료 1년·편월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기)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 | 이메일 khu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터미널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학과평가 3월말 발표 … 계열별 순위 공개도 정원감축 중 차등감축분 1.6%에 반영

대학 자체 학과평가 현황

이승연 기자 leesy0317@knu.ac.kr
 현재 실시 중인 'Organization & Program Review(O&P)' 결과가 이르면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O&P 평가는 학과와 대학원의 입학정원, 자율예산, 교원 채용 인원 조정 등에 활용된다. 특히 지난해 정부지원 대학특성화사업 선정 당시 제시했던 4%의 정원 감축인원 중 차등감축분 1.6% 대상 학과 선정에도 반영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O&P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에 대한 조문'에 근거한 대학 자체평가로 지난 2009년부터 실시돼왔다. 그동안 O&P는 학과별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정량지표의 가중치도 학과별로 조정이 가능한 일종의 '인센티브' 중심의 평가였다.

하지만 학과별 비교대상 대학의 성과를 목표로 설정하고, 같은 계열 내 학과의 정량지표별 가중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등 '비교-경쟁요소'가 강화됐다. 단적으로 그동안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캠퍼스별 전체 학과 대상 우수학과만 포함

〈학과자체평가 변경사항〉		
구분	기준	변경(안)
평가그룹	인문사회체육, 자연과학A, 자연과학B, 의약간호, 예술	인문사회체육, 자연공학, 의약간호, 예술
평가대학 시기	직전학년도 2학기 ~ 당해년도 1학기	직전학년도 1학기 ~ 2학기 (정보공시와 일치)
평가대상 기간	1개 년도	2개 년도 (2015학년도 평가부터 3개 년도)
평가 방법 및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과 : 정량평가(50), 만족도(20), 정성평가(30) 대학원 : 정량평가(50), 만족도(20), 정성평가(30) 행정부서 : 만족도(30), 정성평가(70) 단과대학행정실 : 미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과 : 중점지표(80), 자율지표(10), 만족도(10), 정성평가(10) 대학원 : 중점지표(70), 자율지표(10), 만족도(10), 정성평가(10) 행정부서 : 그룹별로 중점지표, 자율지표, 만족도, 정성평가로 평가 ※ 팀단위 아닌 척단위 평가 단과대학행정실 : 학과 정량지표(80), 정성평가(20)
목표설정	학과별 자체 목표 설정	학과별 비교대상 대학의 성과값을 목표로 설정 (비교 불가능 지표는 계열 내 T값으로 상대평가)
정량지표	과별 정량지표의 가중치 조정 가능 학과의 노력으로 개선이 어려운 지표 포함	계열 내 정량지표별 가중치는 동일 학과의 노력으로 개선 어려운 지표 삭제 (교수당 학생수, 장학금지급율, 외국인교원비율 등)
결과발표	순위 미공개 캠퍼스별 전체 학과 대상 우수학과만 포함	캠퍼스 구분 없이 계열별 순위 공개

으로 계열별로 나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실시한다. 학부의 경우 인문·사회·체육계열, 자연·공학계열, 의·약·간호계열, 예술계열 등 총 4개로 분리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량평가의 경우, 각 그룹에 따라 부여된 중점지표와 통일된 자율지표, 만족도로 세분화된다. 학과는 각각 중점지표 80점, 자율지표 10점, 만족도 10점 등 100점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10점, 110점 만점이다. 대학원은 각각 중점지표 70점,

자율지표 10점, 만족도 10점 등 90점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10점을 더해 합계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지표와 배점은 각 계열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다른 계열의 취업률 지표는 배점 10점인 것과 달리, 예술계열은 배점이 5점으로 책정됐다. 반대로 대학원 진학률은 예술계열은 10점, 다른 계열은 5점으로 배정됐다.

정성평가는 부총장, 행정부서장, 계열별 교수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으로 계열별로 비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1명 이상 수강강좌에 대해 A등급을 35% 이내, B등급을 35% 이내, C등급 이하는 30%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려대학교는 일반강좌에 대해 A+와 A를 0~35%, B+와 B를 0~70%, 그밖에 C+, C, D+, D, F를 30% 이상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무처가 지난해 말 각 단과대학에 '성적평가협조요청'을 보낸 것을 두고 총학생회가 크게 반발하며 논란이 됐던 바 있어<대학주보 1582호(2014.12.08.)> 조정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일방적인 교육부 구조개혁 정책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 정책은 우리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해야 할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된 4개 항목의 경우 대학의 관련 정책이 적절하지 못한데 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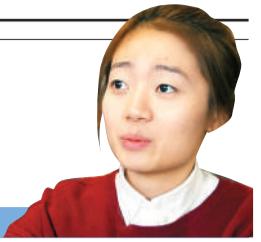
원회에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사회진출 지원, 학과 특성화 추진 실적, 소통, 정책과제 실행 등을 평가한다. 이는 각 학과와 대학원, 행정부서에서 정성보고서를 제출받아 발표평가와 함께 실시된다.

미래정책원 평가진흥팀 우지연 팀장은 "서로 배우는 상승분위기를 만들어 재정악화로 침체된 학교 분위기를 해신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건전한 경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입학정원 축소는 사회적 공감대로 형성되어 있다. 결국 대학의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 일반의 시선이다. 이 회장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엔 부정적이다. 이 회장은 "현재 교육부의 구조개혁은 일방적이며, 학생들에게 그 책임과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며 지난 학기 대학본부에서 성적평균을 B0 또는 이하로 맞추라는 일방적인 성적평가협조요청을 보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

Newsmaker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이정이 (아동가족학 2012) 회장



"일방적인 구조개혁, 학생에게 책임 전가하는 일"

이승연 기자 leesy0317@knu.ac.kr
 백승철 기자 scho1357@knu.ac.kr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를 비롯해 한양대, 동국대 학생회 등이 참여하는 '좋은 학생회 만들기 모임'은 지난 달부터 대학구조개혁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모임은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대학의 학문, 특히 인문·예술계열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어떤 점에서 문제를 낳고 있는지 총학 이정이 회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이 회장은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한 인문·예체능계열이 위축되고 이·공계열 중심으로 대학의 일괄적인 정원조정을 우려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 선도대학사업'을 최근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골자는 여전히 산업계 수요가 적은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을 축소하고 이공계열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대학특성화사업보다 배정 예산이 3배에서 4배 더 높을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대학구조개혁에 '정부지원재정사업'이 연계된 상황에서 대학들이 목표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정부지원재정사업과 연계된 이상 평가에서 자유로운 대학은 없다"며 "교육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과정인데 이번 평가는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잣대로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캠 총학은 일방적인 학사제도 변화를 막기 위해 '학사제도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 회장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타 대학들과 대안 마련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오는 4일 타 대학과 함께하는 대학구조개혁 대안 마련 토론회는 한양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면에서 이어짐

남 원장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학점인플레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과의 소통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성적평가제도는 학점표준화제도로서 B+이상의 성적을 40% 이내에서만 부여하면 되는 단일등급 기준이다. 이에 비해 대학의 성적평가제도는 통상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1명 이상 수강강좌에 대해 A등급을 35% 이내, B등급을 35% 이내, C등급 이하는 30%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려대학교는 일반강좌에 대해 A+와 A를 0~35%, B+와 B를 0~70%, 그밖에 C+, C, D+, D, F를 30% 이상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무처가 지난해 말 각 단과대학에 '성적평가협조요청'을 보낸 것을 두고 총학생회가 크게 반발하며 논란이 됐던 바 있어<대학주보 1582호(2014.12.08.)> 조정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일방적인 교육부 구조개혁 정책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 정책은 우리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해야 할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된 4개 항목의 경우 대학의 관련 정책이 적절하지 못한데 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동시

★ 학군사관(ROTC) 56·57기 모집안내 2015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 56기(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 57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학년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5년 3월 1일 ~ 3월 3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서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월 4일(토) / 발표 : 4월 24일(금)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 4월 27일(월) ~ 5월 22일(금) / 발표 : 6월 12일(금)
- 신원조회 : 6월 15일(월) ~ 8월 14일(금)
- 최종합격 : 8월 20일(목)
- 문의처 : 학군교 (043)830-6039

보도/기획

서울-국제 간 자연계열 ‘동일’과목 인정 안돼 다전공희망 학생 “모순된 제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캠퍼스간 전공기초 인정 여부 논란

이시은 기자 dtidms77@knu.ac.kr

정보디스플레이 학과로 다전공에 합격한 박지용(컴퓨터공학 2010)군은 학사규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당혹스러운 사실을 발견했다. 1학년에 이미 수강했던 수학과 물리학 기초과목을 서울캠퍼스(서울캠) 이과대학 과목으로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군은 “이미 수강했던 과목을 단순히 학수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듣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박 군이 수강했던 과목 중 과목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1학년 기초과목의 학점은 12학점이나 됐다. 하지만 정보디스플레이학과 행정실은 “해당 학과의 개설과목을 수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다”며 “해당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군은 이 사실을 감사행정원 음부즈팀에 알리고, 총학생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복잡한 학사제도와 길어지는 재학기간에 부담을 느낀 박 군은 결국 다전공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런 박 군의 사례는 국제캠퍼스(국제캠) 자연계열 학생과 서울캠 이과대학 소속 학생 간 다전공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전공과목 인정 여부’ 과정에서 국제캠 자연계열의 전공기초과목과 서울캠 이과대학 전공기초과목이 부여되는 학수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수’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국제캠 자연계열 전공기초과목인 ‘물리학 및 실험1’과 ‘미분적분학1·2’를 이미 수강해도, 이과대학에 속한 학과로 다전공을 하려면 이과대학에서 개설되는 ‘물리학 및 실험1·2’와 ‘미분적분학 및 연습1·2’를 다시 수강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표1 참조)

대학, ‘학수번호 달라 인정 불가능’

우리학교의 경우 전공과목의 이수구분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경우 해당 학과 전공의 특수성이 반영된 체계적이고 심화된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반면 ‘전공기초’의 경우 해당 학과

의 특수성 보다는 계열내에서는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많다. 때문에 국제캠 자연계열(전자정보대학, 공과대학,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에 대해 교육내용에서 차이가 없는 전공기초과목의 학수번호를 ‘국제 자연계열 전공기초’로 지정해 동일한 학수번호로 수강할 수 있게끔 시행해왔다.

하지만 서울캠 이과대학은 같은 자연계열이지만, 캠퍼스 이원화 상황에 따라 단과대학 자체 전공기초 강좌를 개설해왔다. 때문에 국제캠 자연계열 내에서의 다전공이나, 이과대학 내 다전공을 신청한 경우만 학수번호가 같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인정여부, 실무부서별 입장차

문제는 이런 상황을 보는 시각차가 뚜렷한데 있다. 이과대학-국제캠 자연계열 다전공 학생들의 경우 학수번호를 통합하길 요구하지만, 일부 실무부서에서는 ‘수업목표’나 ‘실험시수’의 차이를 이유로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과대학 A학과 행정실 관계자는 “가르치는 방식과 목표로 하는 ‘지향점’이 다르다”며 “안타깝지만 동일 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학과 행정실 관계자 역시 “특히 기초실험 과목들은 시수차이가 있다”며 통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물리학 및 실험1’은 이과대학의 경우 이론 시수 2시간, 실험시수 3시간으로 국제캠퍼스 단과대학에서 진행되는 ‘물리학 및 실험1·2’ 과목에 비해 실험시수가 1시간 정도 많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다전공 시 전공학점 기준을 완화해주지만, 4년 이내 모두 수강하기 벅차다는 입장이다. 또한 종합정보시스템 상의 강의계획서가 유사함은 물론이고 각각의 수업이 배우는 내용이나 커리큘럼, 같은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을 다전공하고 있는 안태현(화학공학 2013) 군은 “미분적분학 1·2처럼 예전에 수강을 마무리한 기초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동시에 학생 개인의 커리큘럼에 큰 지장을 준다”며 “현재 불합리하고 모순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khuis.knu.ac.kr/java/servlet/knu.hssu.infospace		
부교재 및 참고자료	3	Hall Walker
1 Fundamentals of Physics		
2		
3		
주별 강의 내용	강의 내용	
1주	전하 및 전기장	
2주	가우스 법칙	
3주	전기 팬데믹과 capacitance	
4주	전류와 저항	
5주	옴의 법칙과 emf	
6주	emf와 회로	
7주	자기장과 자기력	
8주	중간고사	
9주	임페어 법칙	
10주	전자기 유도	
11주	인덕션스	
12주	AC 회로	
13주	맥스웰 방정식	
14주	맥스웰 방정식과 전자기파	
15주	간섭과 회절	

https://khuis.knu.ac.kr/java/servlet/knu.hssu.infospace.TimeTableLecture		
부교재 및 참고자료	1 Lectures in Physics	Reynman
1	Introduction of Physics for Scientist and Engineering	Bueche
2	Fundamentals of Physics (6th edition)	Halliday, Resnick, Walker
3		
주별 강의 내용	강의 내용	
1주	제21장 전하	
2주	제22장 전기장	
3주	제23장 가우스 법칙	
4주	제24장 전기포텐셜	
5주	제25장 전기용량	
6주	제26장 전류와 저항	
7주	제27장 회로	
8주	중간고사	
9주	제28장 자기장	
10주	제29장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11주	제30장 유도와 유도용량	
12주	제31장 교류	
13주	제32장 맥스웰방정식	
14주	제33장 전자기파	
15주	제38장 물질파	

국제-서울 캠퍼스별 ‘물리학 및 실험2’ 강의계획서의 일부

과목명(국제)	학수번호	개설학과명	과목명(서울)	학수번호	개설학과명
물리학 및 실험1	APHY1102	국제 자연계열 전공기초	물리학 및 실험1	PHYS1101	서울 이과대학 물리학과
물리학 및 실험2	APHY1103		물리학 및 실험2	PHYS1102	
화학 및 실험1	APCH1101		화학 및 실험1	CHEM1101	
화학 및 실험2	APCH1102		화학 및 실험2	CHEM1102	
생물학 및 실험1	ENV171		생물학 및 실험1	BIO1101	
생물학 및 실험2	ENV172		생물학 및 실험2	BIO1102	
미분적분학1	AMTH1102		미적분학 및 연습1	MATH1101	
미분적분학2	AMTH1103		미적분학 및 연습2	MATH1102	

<표1> 다전공시 문제가 되는 전공기초 과목들. 국제캠은 개설학과명이 동일한 반면, 서울캠은 과목마다 동일한 학수번호를 부여한 후 학과별로 개설한다.

융·복합교육 추세에 맞춰

제도 개선 있어야

최근 다전공 신청자가 증가하고, 융·복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0월 이과대학 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

다. 이 논의에서도 ‘주간 수업시수가 다르고 과목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봐야한다’라고 반대하는 입장과 ‘학과 간의 연계성과 학생의 편의를 봐서 같은 과목으로 인정하자’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과대학 행정실 장미내 직원은 “학생들의 문의가 지속됨에 따라 이과대학 논의를 종합한 회

의록을 교무처 학사지원과에 전달했다”며 “어떤 방향이던 하루 빨리 기준이 마련돼 학생들이 혼란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회의록을 전달받은 학사지원과는 올해 1월, ‘논의 중’이라는 말만 이과대학 측에 전달한 후 지금까지 결정을 보류중인 상태다.

2015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1. 취득 가능 학점 가. 성적부여 방식: P / F (2014학년도 부터 P/F 모두 성적표에 기재)
나. 최대 취득가능학점: 학기당 1학점, 총 2학점(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2.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항목	2012-2학기 이전	2013-1학기부터	
사회봉사	- 경희온라인캠퍼스 사회봉사 강좌 이수, 입학 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 으로 학점 인정	- 휴학에 관계없이 입학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 으로 학점 인정	
인정기준	국공립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최대 32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려운 경우라도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이 불가능 ①365 자원봉사포털(www.365.go.kr),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사회봉사봉사활동증인증관련(www.vms.or.kr) 사이트를 통해 등록된 기관에서 봉사를 실시하고,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가능 (예외 없음) ②교내 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단, 취업진로지원처와 사전협의 된 봉사활동만 인정 ③현역증을 기증하는 경우 (현역증서 외 다른서류 불가)	
문의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service@knu.ac.kr)		
3.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 및 실적등록신청			
구분	교과목 이수 (학점인정신청)	실적등록	
대상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	
서류 제출기간	2015년 5월 26일(화) ~ 2015년 6월 5일(금) 15:00까지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체 서류를 받지 않음		
제출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2. 봉사활동확인서 원본 및 사본	1. 실적등록 신청서	
제출서류양식은 http://Service.knu.ac.kr/ 접속 후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학점인정 신청관련 서류제출방법 변경 예상대로 추후 공지사항 확인 필수			
4. 기타 세부사항 가. 봉사활동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된다. (1학점 취득 위해 최대 4일 이상 실시해야 함) 나. 한혈 증 기증을 통한 봉사시간 인정은 입학 이후 실시한 한혈에 한하여, 교과목 이수에 요구되는 32시간 중 총 16시간 까지 인정 가능하며 연도별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6. 2.28 이전	2006. 3. 1~2011. 2.28	2011. 3. 1 이후
한혈증 1장 당 인정시간	15	8	4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 Level Test
 - 영어회화 : 3, 3(회), 4(수) 17:30
 - 일본어 · 중국어 · 스페인어회화 : 3, 4(수) 17:15
 ○ 강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3, 9(월) ~ 4, 17(금)
 - 주말 외국어강좌(10주) : 2015. 2. 17(수) ~ 3. 13(금)
 ○ 추가 접수기간 : 3, 4(수) ~ 3, 20(금)

○ 개설강좌
 Tel. 02) 961-0081~2 <http://www.ie.ac.kr>

구분	강좌명	단계	강의시간	수강료 (전액으로 포함)
정규 외국어 강좌	영어 회화	Basic (Level 1)		150,000원
		Beginning (Level 2)		
		Intermediate (Level 3~4)		
		High Intermediate (Level 5)		
		Advanced (Level 6)	오전 7:45 ~ 8:45 (월~토) 오후 6:30 ~ 7:50 (월·수·목)	
한국어 회화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Basic (Level 1)	오후 6:00 ~ 7:20 (월·수·목)	
		Beginning (Level 2)	오후 6:00 ~ 8:00 (화)	
		Intermediate (Level 3~4)	오후 7:30 ~ 8:50 (월·수·	

기획연재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 대학주보는 이번 학기에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연재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총6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하고 다단한 문제들에 대해 차근차근 고민해보는 동시에, 옆 나라 일본의 대학원은 어떤 모습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현실과 비교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다.

연재순서

① 총론-대학원의 위기

- ② 장학제도
- ③ 생활복지 및 연구지원 시스템
- ④ 커리큘럼
- ⑤ 학생선발 시스템
- ⑥ 대학원 조직문화

학술연구에 몰두할 수 없는 학술연구기관 부당한 대우에도 숨죽여야 하는 대학원생

연재기획① : 대학원의 위기

백승철 기자 sch01357@khu.ac.kr
최승욱 기자 dotoril4@khu.ac.kr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종 정심(精深)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학술연구의 지도능력(指導能力)과 독창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대학 과정보다 한층 더 심오한 연구와 교수(教授)를 실시하는 교육기관. 국가에 따라 그 주요 기능을 연구에 두기도 하고 연구와 교수에 두기도 하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는 후자에 두고 있다."

교육학용어사전이 정의하는 '대학원'의 정의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학교 대학원이 이렇듯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는 심오하고 전문적인 학술연구의 장은 아니라는 데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위기의식마저 불러온다.

사실 대학원이 위기를 맞은 이런 상황이 비단 우리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말 뛰어난 일부 대학원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원들이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학교 대학원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게다가, 한국 대학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문제점들과 함께 우리학교만의 추가적인 문제점들까지 가지고 있다.

대학원생의 경제적 문제는 '연구인력'을 '저가노동력'으로 둔갑시켜

우리학교를 '대학원중심대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분류하자면 우리학교는 '학부 중심대학'에 더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는 것이 '대학원중심대학'보다 대학원의 역할을 축소시켜도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연구', '봉사'라는 대학의 3대 기능 중에서 '연구'의 기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대학원이기 때문이다.

"원우들이 다른 데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학교는 그런 점에서 미진합니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박진홍 회장의 말이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학교 대학원이 대학원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소리다.



대학원생의 삶은 대학생의 삶에 비해 훨씬 바겁다. 공부하느라 바거운 것 보다는 살아남는 데에 바겁다. 가령 경제적인 측면을 보자.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우리학교 일반대학원의 등록금 평균은 학기당 578만원이다. 이는 우리학교 학부 등록금 평균 382만원에 비해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제도는 학부생을 위한 그것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대학원에 온 목적이 '공부'에 있음을 감안하면 대학원생은 학부 생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쏟을 여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상당수의 대학원생은 근로장학금을 통해 학비를 충당한다. 문제는, 근무를 통해 학비를 감면받는 이 제도가 업무 때문에 정작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대학의 '연구' 기능을 담당해야 할 인력이 대학의 '저가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근무처에 따라서는 직원 본인이 해야 할 업무를 조교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심지어 강제로 야근을 강요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된 대학원생들이 많다.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정책 속에

흔들리는 대학원

최근에는 그마저도 조교 근무시간 조정 등의 정책을 통해 근로장학금을 받는 것도 이전 대비 어려워진 상태다.

그렇다고 강의환경이 학부과정에 비해 획기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그 질적 측면에서 학부과정 강

의와 큰 변별력을 지니지 못한다.

'국제화 지표'를 평계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은 강의환경 문제의 주요한 화두 중 하나다. 학부 강의실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대학원 강의실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다. 한국에 실력이 부족한 유학생들은 대학원 과정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수업이나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수업의 질을 하락시켜 필연적으로 '학습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거꾸로 돌아간다. 외국인 유학생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수준을 끌어 올리는 대신, 오히려 반대로 논문심사기준이나

성적평가기준을 낮춰 그들의 수월한 졸업을 돋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국제화 지표를 높이기 위한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는 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며 학술과 연구라는 대학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방해가 될 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제식 교육'으로 지칭되는 사제관계는 교수가 학생에 대해 엄청난 권한을 갖는 대학원 특유의 구조와 만날 때 거대한 부조리를 만들어낸다.

지난해 10월 29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전국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자. 발표결과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45.5%는 언어·신체·성적 폭력, 차별, 사직노동, 저작권 편취 등 부당 처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중 65.3%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우리학교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학교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희대학교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43.2%의 대학원생이 언어·신체·성적 폭력 및 차별 사직노동, 저작권 편취 등의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중 63.6%는 불이익이 두려워 부당대우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대한 부조리 잉태하는 왜곡된 조직문화

당연하게도, 대학원생이 이런 부당처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교수는 자신의 학생이 제출하는 논문을 심사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교수는 마음만 먹으면 학계 내에서 해당 학생을 영구적으로 추방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교수는 학생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원 사회에 만연한 부당처우는 어느 한 대학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견제장치가 없는 교수의 절대적 권리구조를 가진 대학원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학주보는 다음 호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크게 장학제도, 복지제도, 연구지원시스템, 커리큘럼, 대학원 문화 등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는 한편, 이러한 문제가 외국 대학원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디어센터가 더 다양한 기획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미디어센터에서는 신문방송국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기획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학내 구성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뉴스메이커와 화제의 학내 현장 모습을 담아내는 포토뉴스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기획연재 신청을 기다립니다.

관심있는 필자분은 언제라도 미디어센터에서 연재기획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961-0094 http://media.knu.ac.kr/
031-201-3231

페미니즘,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

특별기고 - 페미니즘

이택광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교수

페미니즘은 이제 낯선 말이 아니다. 영화 <해리 포터>에 출연했던 엘마 왓슨이 페미니즘 발언으로 주목을 받더니, 얼마 전에 개최된 오스카상은 정당한 여성의 뜻을 주장하는 여배우들의 수상소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영국의 출판사 베소는 페미니즘 분야에서 고전으로 꼽히는 줄리엣 미첼의 <<여성의 지위>>를 비롯한 다양한 책들을 재출간했다. 그러나 이런 봄이 일어나는 것과 반대로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여성혐오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여성혐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여성차별주의가 알게 모르게 일상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굳어 있다는 사실이다. 19세기에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이래로 여성차별을 극복하고자 했던 술한 노력들은 상당한 결실을 맺긴 했지만, 또한 그 만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다. 도덕적인 측면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여성차별의 문제는 존 스튜어트 밀이 <<여성의 예속>>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시키는 것은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관점만 갖추더라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여성혐오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밀과 같은 관점은 전형적인 공리주의적 태도이기도 한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은 근대적인 패러다임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상식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공리주의라는 것은 사회적 구성원에게 최대한 동등한 자



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는 사상이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이 근대의 정언명령이라면, 사회의 구성원 모두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무한한 성장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최초로 여성 차별을 문제 삼은 사상은 자유주의였다. 그러나 여성운동에 투신했던 페미니스트들은 곧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다. 남성과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 받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면 여성차별이 사라질 것이라고 봤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속화되고, 여성운동의 성과가 일정하게 축적되기 시작하자, 또 다른 문제가 부각되었다. 자유주의에서 옹호하는 여성의 권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여성에 한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통념을 낳는다. 시민권이라는 용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민>>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여성만이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노예여성의 권리도 백인 여성과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등장하는 것은 그래서 필연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다면,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유럽의 백인을 의미했다. 자유와 평등을 옹호했던 로크조차도 노예를 경제적 재화로 생각했기 때문에 유럽이 아닌 곳에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다른 인간들이 살고 있으리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당연히 자유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지금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차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립이 필요하다

자유주의가 무의식적으로 전제했던 <<백인 여성만의 권리>>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노예여성의 권리도 백인 여성과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등장하는 것은 그래서 필연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다면,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는 여성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성 운동에 단초를 제공한 페미니즘은 참정권 운동부터 가부장제 비판까지 다양한 분화를 거쳤다. 가부장제에 지배당하는 가족주의에 대항해서 여성의 분리를 주장하는 급진 페미니즘과 계급을 비롯한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없이 여성해방도 있을 수 없다고 믿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화해하기 어려운 논쟁점을 갖게 마련이다.

한때 <<신사회운동>> 중 하나로 불리면서 기존의 사회운동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페미니즘은 여성차별 이슈를 부각시키고 여성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 역시 다른 정체성 정치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가시화되어 있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빈곤 문제를 문화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을 결속해주는 고유성에 대한 ‘인정욕구’로 대체해 버리는 한계도 노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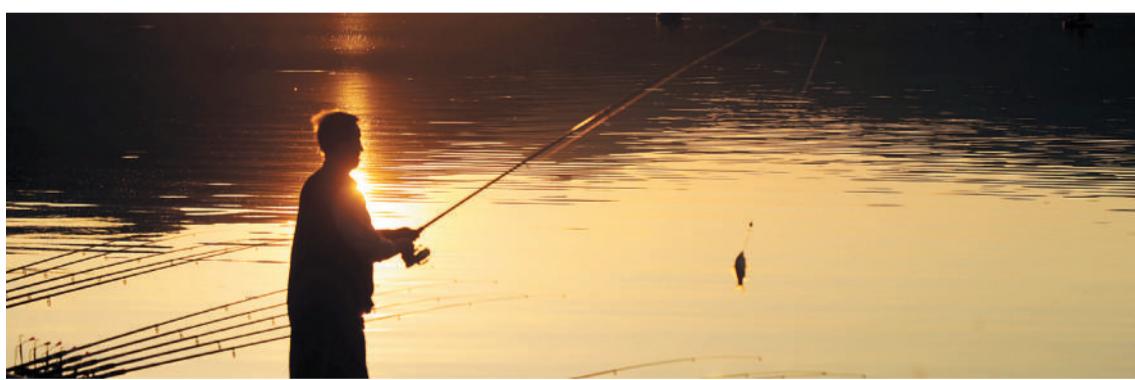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지금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차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립이 요청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1면에서 이어짐

가는 곳마다 내가 좋을 일을 하면 동생은 나쁜 짓을 하며, 내가 이로운 일을 하면 동생은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합니다. 어쨌거나 나를 사랑하려거든 동생도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종종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이 처해 있는 근본적 구조다. 만남이 있으면 해어짐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늙어 죽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을 얻는 때가 있으면 잃는 때가 있게 마련이다. 앞의 것들은 뒤의 것들과 맞물려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 드러나기에 우리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을 모를 때를이다. 우리가 내 눈앞에 일어난 행운들, 이를 테면 원하던 대학에의 입학이나 좋은 직장에의 취직, 혹은 연인과의 사랑에 마냥 기뻐하고 열광한다면 그것은 삶의 구조가 이 이야기 속의 자매와 같은 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행운의 여인은 불행의 여인은 늘 함께 하는 자매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둘 다 받아들이기



욕망을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 포기하거나 해야 한다. 어느 쪽이건 내키지 않는 선택인데, 경전은 두 경우 모두를 말한다. 먼저 주인은 두 여인을 모두 쫓아버렸는데, 두 여인이 나란히 사라져 가는 것을 보자 주인은 마음이 후련해졌다. 이윽고 두 여인은 어느 가난한 집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그 집 주인이 두 여인을 보고 반기면서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며 맞아들였다. 여기까지의 전개를 보고 모든 상황을 다 감내하려는 기난한 이의 태도를 예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전은 다음과 같이 반전된다. “태어나면 늙어야 하고, 병이 들면 죽게 되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두 가지에 다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함께 버리고 애착하지 않는다.”

우리가 얻는 것은 언젠가는 잊게 마련이니 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경전은 세상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눈앞에 어떤 것이 있건 그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끝내는 절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끝내는 절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참여마당

이준희
(한국어학 2011)



힙합, 우리 청년들의 배출구

최근 음악 케이블 채널 ‘M.net’에서 인기를 모은 두 개의 힙합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Show Me The Money’과 ‘Unpretty Rapstar’다. 이 두 프로그램 모두 힙합을 주제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음원 차트, 예능 프로그램, SNS 등에서도 힙합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힙합은 강한 비트와 직설적인 가사를 특징으로 하는 음악이다. 1970년대 미국 흑인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이 생소한 음악은 수십 년 간 전 세계를 거쳐 1990년대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2015년 현재, 힙합은 음악 시장 뿐 아니라 청년 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왜 우리 젊은 세대는 이 힙합이라는 자극적이고 건방져 보이는 음악에 심취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저항정신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심리 상태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는 힙합에 대해 “자유에 대한 욕구, 억압과 차별 등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풀어낸다”며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진모 씨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 학업, 진로, 취업, 스펙 등으로 인해 여느 시대의 청년과 비교해도 작지 않은 압박의 스트레스를 힙합이라는 음악을 통해 대신 분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힙합은

현재의 젊은 청년들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두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우리 청년들의 특성 때문이다. 통이 큰 바지, 화려한 메탈 장식, 비틀게 쓴 슬收支으로 대표되는 힙합 특유의 의류 문화는 자신을 드러내 주목받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정신과 맞물린다. 이런 공통점은 힙합을 비주류 장르에서 거대한 주류로 옮겨놓기도 했다. 우리 청년들은 최대한 뛰지 않고 침묵하며 대세를 따르는 것을 미덕이라 여겼던 기성세대의 생각에 반대했다. 정형화되고 획일화되어 자기표현에 제약을 받는 것에 과감히 반대하는 우리는 기존 음악 대신 뛰고 개성 있는 힙합을 선택한 것이다.

세 번째, 우리는 솔직한 것을 좋아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솔직함’의 미덕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제 각종 매체에서 ‘솔직함’이 개인의 장점을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체면과 의식을 쟁겨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이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과거세대와 다르다. 현대의 청년들은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러한 문화는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직설적으로 내뱉는 힙합 특유의 화법과 일맥상통한다.

위의 세 가지 이유에서 볼 수 있듯,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힙합은 현재의 젊은 청년들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흑자는 ‘요즘 사람들은 힙도 패기도 없고 고분고분하기만 하여 저항할 줄도 모른다’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말은 옳지 않다. 부조리에 대해 우리 청년들도 충분히 분노를 느끼며, 실제로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꼭 외부로 표출하여 드러내는 것만이 저항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창업스쿨 강좌 개설

창업보육센터가 Mark Zuckerberg를 꿈꾸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캠퍼스 CEO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5학년 1학기 학점인정 강좌 안내

강좌명	학점인정	인원수	강의실/시간
창업경영과 기법과정	자유이수 3학점	75	화요일 15:00~17:45 청운관 507호
모바일서비스와 플랫폼의 이해와 성공전략	자유선택 2학점	40	금요일 10:00~11:50 네오관 103호
문화컨텐츠와 비즈니스	자유선택 2학점	40	금요일 12:00~13:50 네오관 103호

5. 문의 및 안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네오그리너스관 308호)
Tel : 02-961-9330~2 / Fax : 02-961-9333
E-mail : khsd2285@khu.ac.kr

6. 후 원 : 서울특별시, SBA (Social Business Agency), 서울창조전문인력
센터 CEO

스포츠

사자군단 무패우승, 춘계연맹전 최다 우승팀되다



지난 26일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춘계대학축구연맹전 결승전에서 우리학교 축구부가 영남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제5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김유림 객원기자 csyong1617@naver.com

우리학교 축구부가 '제5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결 한·일정기전 선발전(춘계연맹전)'에서 무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으로 우리학교는 고려대와 함께 춘계연맹전 최다우승팀의 타이틀까지 차지하게 됐다.

지난 26일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우리학교는 영남대와 맞붙었다. 영남대와는 예선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고, 지난 '제45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16강에서도 0-0 무승부였던 만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다.

전반 6분, 영남대 최강수 선수가 안정훈(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의 얼굴을 겨냥해 퇴장당했다. 하지만 영남대는 10명의 선수로 강한 집중력을 발휘했다. 전반 14분, 영남대 박세진 선수가 왼쪽에서 날아온 크로스를 깔끔하게 헤딩으로 연결해 선취골을 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 축구부는 경기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추격의 불씨를 지폈다. 전반 30분, 우리학교의 날카로운 공격이 빛을 발했다. 왼쪽에서 돌파하

던 이상하(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컷백 형태로 크로스를 올렸고, 이건철(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원발로 침착하게 밀어 넣으며 경기의 균형을 맞췄다. 동점골과 함께 우리학교는 상대의 수비를 더욱 압박했고, 바로 4분 뒤에 장정빈(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중원에서 페널티박스까지 빠르게 돌파한 뒤 강력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었다.

우리학교 축구부의 과죽지세는 후반전까지 이어졌다. 영남대는 우리학교 선수들의 움직임을 반복으로 끊어내고, 공을 바깥쪽으로 걷어내기 급급했다. 물론, 역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한 영남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박정수(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와 이정훈(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는 날카로운 수비로 더 이상 골을 허용하지 않으며 경기를 2-1 짜릿한 역전승으로 마무리지었다.

준우승 징크스 깨고,
팀의 미래 발굴 성공

이번 대회는 우선 우리학교의 준우승 징크스를 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년 전 춘계연맹전에서 고려대에 아쉽게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무른 이후 출전한 대회에서

<춘계연맹전 우리학교 경기결과>

일시	상대	결과	득점
2월 10일	영남대	0-0 무	
12일	한중대	4-0 승 최동섭, 이건철, 조현우	
14일	동강대	6-0 승 고승범 박정수 박우정	박인혁(3)
18일	동의대	3-0 승 박인혁(2) 안정훈	
20일	한양대	2-0 승 고승범(2)	
22일	상지대	2-0 승 백승훈 고승범	
24일	숭실대	4-3 승 고승범(2) 이건철(2)	
26일	영남대	2-1 승 이건철 장정빈	

준우승에 그치며 우승과는 인연이 없는 팀으로 손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학교 축구부는 12년 만에 춘계연맹전 정상에 올랐으며, 8번째 춘계연맹전 우승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것으로 지난해 우승으로 최다우승 타이틀을 갖고 있던 고려대와 동률이 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에서는 2학년이 되는 14학번들이 팀의 중심으로 활약해, 향후 우리학교 축구부의 전망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큰 수확이다. 수문장 지승학(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 수비수 박우정(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 미드필더 안정훈, 유진석, 백승훈(스포츠지도학 2014) 선

수, 공격수 이건철, 박인혁(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까지 포지션 역시 다양하다. 특히나 공격수인 이건철 선수와 박인혁 선수는 큰 신장을 이용해 상대수비를 흔들었고,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뽑아내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한편 우리학교 축구부 4명의 선수가 개인상도 수상했다. 결승전까지 총 8경기를 치르면서 단 4골만을 허용한 골키퍼 지승학 선수가 GK상, 대회 내내 물오른 골감각을 자랑하며 5골을 뽑아낸 고승범(스포츠지도학 2103) 선수가 득점상, 우리학교 축구부가 최소 실점하는데 한몫한 이정훈 선수가 수비상을, 결승전에서 크게 활약한 장정빈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축구부 김광진 감독은 "그동안 준우승 트라우마에 걸려 힘들었다"며 "오늘 우승이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끝까지 끈끈함을 유지한 선수들에게 고맙다"라고 말했다. 축구부 이정훈 주장은 "미드필더들이 공격가담, 수비가담 하느라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담될 텐데도 수비가담을 열심히 해주 편하게 대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축구부 김광진 감독

Q. 우승 축하한다. 12년 만의 우승이다.

A. 그동안 준우승 트라우마에 걸려서 힘들었다. 오늘이 그것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기쁘다. 끝까지 끈끈함을 유지하며 경기에 임해준 선수단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Q. 힘들었던 경기다. 선취골을 주고 시작했다.

A. 상대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범해서 아쉽다. 정상적인 경기가 됐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서로에게 지루한 경기가 돼서 아쉽다.

Q. 결승까지 총 8경기를 치렀다. 가장 힘들었던 경기는 어떤 경기였나?

A. 한 경기 한경기 모두 힘들었지만 숭실대와의 준결승전이 가장 힘들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새해 시작부터 오늘까지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묵묵히 훈련을 따라준 우리 선수들에게 우승의 영광을 돌린다.



MVP 장정빈 선수

Q. 결승전이 시작되기 전에 팀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하다.

A. 결승전이니까 관중도 많고, 중계도 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경기 밖의 분위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하자고 말했다. 우리가 해왔던 만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Q. 우승에 이어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A. 이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팀 모든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Q. 이제 시즌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각오 한 마디 해달라.

A. 첫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 앞으로의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

온라인 취업컨텐츠 솔루션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 입니다.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취업컨텐츠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①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career.khu.ac.kr>) 로그인
② 화면 중간부분 [온라인 취업솔루션] 배너 클릭

서비스 경로 (이용방법)

- ①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career.khu.ac.kr>) 로그인
- ② 화면 중간부분 [온라인 취업솔루션] 배너 클릭



컨텐츠 안내



Report Report E-test Report

취업전략리포트 합격자 자기소개서 주요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면접 가이드북
채용설명회 일정확인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기타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기업별 직무사전

Video Video Video Video

대한민국 지원 산업군 합격 자소서 항목별 작성법 삼성그룹(SSAT) 유형분석
지원직무 분석 역량항목 작성하기 SSAT 수리상화(응용계산)
전자공시 기업분석 실패경험 선정 및 작성 SSAT 수리실증(자료해석)
성공 취업스터디 운용전략 합격 자기소개서 작성법 대기업 통합직성검사
금융권 필수 강의 500자 자소서 2가지 법칙 SK증권(OCAT) 유형분석
[금융권] 마을먹고 준비 투신그룹(DCAT) 유형분석 현대자동차그룹 유형분석
[금융권] 단계별 핵심공략 [금융권] 자소서 공략 CJ그룹(CJ CAT) 유형분석
[금융권] 자소서 공략 금융권 직무적성검사 특강

1분 스피치(금융권)

1분 스피치(기술영업)

1분 자기소개 전략

면접의 종류 및 유형 준비

인성면접 단골질문

토론면접 Q&A

임원면접 A to Z

이미지컨설팅 - 면접의상

이미지컨설팅 - 면접매너

이미지컨설팅 - 면접스피치

성공면접 노하우

사로잡는 면접화법

cover

우수 증진/중소기업 정보
합격자 성공스토리
오후의 직장인 인터뷰
1000 대기업정보

cover

자기소개서 명언집
기업별 자기소개서 항목

cover

직무적성검사 후기
직무적성검사 학습자료

면접 후기

면접화법